



안암병원 2022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직원이 행복한 병원 스마트한 병원 만들자!

3월 23일(수) 오전 10시 안암병원 헤드 오피스에서는 2022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진행됐다.

사측 위원으로 대표위원인 윤을식 병원장과 임기정 기획실장, 정태경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석했고, 노측 위원으로 대표위원인 노재옥 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본 회의 전 3개 병원 안전·보건관리자와 진행한 산안위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의는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을 포함하여 약 6가지의 안전을 논의했으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뒤 폐회했다.

사, '직원안전을 위해 노사 힘을 모으자.' 노,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노동강도 증가 및 감염노출에 대한 대책 필요."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에서 윤을식 병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다들 건강 유의했으면 한다.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노사가 같다. 교직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질병관리청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완화된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 환자를 음압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규제 없이 일반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진들의 집단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들은 정부의 격리지침 7일이 아닌 병원 지침 5일로 격리하고 있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3월 23일 '정부가 의료진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발표해 실제 병원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현장은 이수라장이다.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재 직원 확진으로 인한 인력공백이 심

각해 환자를 볼 수 없으니 환자 수를 조절해야 해야 할 것 같다.

한편, 이직률을 낮추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를 위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 사후 프로그램 홍보 상호존중문화 만들기 노사 캠페인 진행 마음이 편안해지는 병원 만들자.

안암병원은 ▲감정노동 사후 프로그램 홍보 ▲상호존중문화 만들기 노사 공동 캠페인 진행에 대한 안건 논의를 하면서 "언제든 같이하겠다.", "노조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스마트 병원으로 향하기 위한 안암병원의 시도 엿보여.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기송관(에어슈터) 설비 재운영 및 확대에 대한 안전을 논의하면서 윤을식 병원장은 "병원도 스마트를 지향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문가를 필두로 VIP병동, 외래, 수술실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업체와 협약을 맺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송관 설비도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줄이기위한 방법이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안암병원 2022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 결과

안건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지난 실무회의 논의건	【임산부 보호조치에 관한 건】 미니등신대, 목걸이형 배지 지급을 위한 코드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되었는가.	노조에서 추가 물품을 요청하셔서 추가 물품에 대한 코드작업이 진행되느라 지연되었다. 작업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탄력스타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에 관한 건】 탄력스타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 시 금액이 부과되므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진단서 발급 없이도 탄력스타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	진단서 발급 대신 신청서 양식으로 대체하여 변경하려면 3개 병원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논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건】 간호사 간편복 세탁 횟수를 2회로 늘리자. 오염된 유니폼을 일주일간 탈의실에 보관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세탁으로 이어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감염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간편복으로 변경된 뒤 처음 시행이라 옷이 적어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 먼저 간호부에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어떤 문제점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차기 계약 시 반영하면 좋겠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위험성평가 대체 노동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성 건】 부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향상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대표위원께서도 매우 공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겠다. 점검 시 노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합동으로 점검하자.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 구성 건】 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기업처벌법, 시민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원내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의 안전관리자는 환자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없기에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중대재해시민처벌법 전담 인력도 필요하다. 중대재해전담팀장 1명, 안전관리자 1명, 중대재해시민처벌법 전담 1명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② 산안법 64조에 따라 도급 및 위탁업체 협의체 회의록을 노조에 공유해달라.	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있다. 중대시민담당자는 총무파트장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팀장은 중대산업재해 간사 및 통합 간사이며 시설팀장이 중대시민재해 담당 간사를 하고 있다. 법률자문, 고용노동부 질의결과로는 법상으로 이상이 없다. ②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하자.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건	【기송관 설비(에어슈터) 개선 건】 외래와 의료정보팀, 약국과 병동, 병동약국과 외래약국간 기송관 운영 폐쇄로 사람이 이송 업무를 맡으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대면으로 업무가 이뤄져 코로나19 시국에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 지고있어 기송관 설비를 재운영 및 확대해야 한다.	이제 스마트 병원 시대이다. 병원은 직원들의 업무 로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에어슈터 설비는 신관 신축 시 설계에 포함되어있다. 현재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있어 설치를 고려해봐야 한다.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감정노동 사후 프로그램 홍보 건】 ① 게슈탈트 심리 치료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신규 직원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필요하다. ② 배너, 스크린 세이버, DID 모니터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자.	① 매년 정기교육 시 같이 홍보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배너를 제작해 직원식당에 게시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달라. 홍보 진행하겠다. ② 알겠다. 진행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하겠다.
	【상호존중문화 만들기 노사 공동 캠페인 진행 건】 ① 지난 4/4분기 산안위에서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 진행을 의결하고, 3월 8일 노사 공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상호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 조직 구성이 중요하다. ②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을 노사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① 고객지원팀에서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고객지원팀과 논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②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행사를 자주 할 수 없어 제약점이 많은데 진정되면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